

불소수지

시장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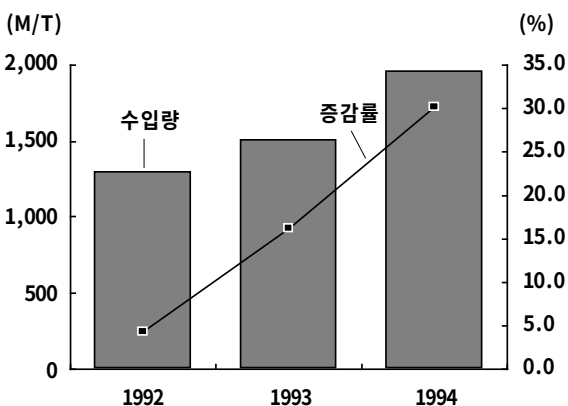
94년 불소수지 수요량은 1956톤으로 93년대비 무려 3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일반성형을 비롯해 불소수지도료, 전선피복용 등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등 제품의 고급화추세 때문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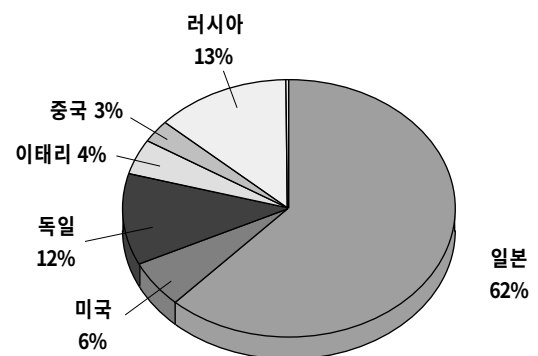
92년까지만해도 성장의 한계점 도달, 치열한 가격경쟁 및 값싼 중국산 유입물량 증가, 원료가격 인상 등의 요인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던 불소수지 시장이 94년이후 수요증가 및 가격인상 등으로 경기가 크게 호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소수지는 80년대후반부터 사용되기 시작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 90년대초 Dupont, Hoechst, Daikin, Asahi 등의 다국적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공급과잉으로 가격하락 양상을 보였었다. 국내 불소수지 시장은 막대한 설비투자과 기술력 부족, 시장 협소 등으로 국내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으로 Daikin · Asahi/ICI · Dupont 등 일본에서 들여온 물량이 1213톤으로 전체수입량의 62.0%를 차지하고 있으며 Hoechst에서 수입한 물량은 227톤으로 11.6%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국내 불소수지 수입추이



불소수지 국가별 수입구성비(1994)



또 최근에는 값싼 중국산 및 러시아산 제품의 유입이 활발한데 특히 러시아산 수입물량은 254톤으로 13%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산은 56톤으로 2.9%, 이태리 Ausimont제품은 87톤으로 4.4%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Atochem, Ausimont, Asahi Glass 등은 주로 페인트용 불소수지 시장을 놓고 경쟁중으로 미국 Atochem이 독점했던 가열건조형 불소수지(PVDF : Polyvinylidene Fluoride)시장에 이태리계 미국기업인 Ausimont가 참여해 페인트용 불소수지 시장쟁탈전이 치열하다.

도료용 불소수지는 Atochem의 「카이나500」이나 Ausimont의 「하이라5000」 등 대부분 가열건조형이 사용되고 있으며 Asahi Glass의 자연건조형 불소는 건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품은 건조시간이 길어 불편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국내 불소수지도료 시장은 91년 59억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9% 증가하고 93년에는 930억원으로 29.0% 증가하는 등 두자리 이상의 고속 성장을 보이고 있어 페인트용 불소수지가 전체 불소수지 수요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 불소수지 가운데 산업용으로 쓰이는 제품은 윤활성과 내열성 · 내마모성이 뛰어나 건축배관 및 기계부품용으로 사용되며 이부문용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가 격

불소수지는 수요증가 추세에 힘입어 94년이후 중국산 및 러시아산 침투가 활발해 가격경쟁이 치열했으나 95년들어 Dupont을 필두로 가격인상을 단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5년 초까지 PTFE(Polytetrafluoroethylene)는 일반성형용이 Kg당 1만3500원, Copolymer는 1만8500원에 거래되고 있었으나 Dupont은 95년7월을 기준해 일반성형용은 1만5000원, Copolymer는 2만원으로 인상했으며 나머지 기업도 10%내외의 가격인상을 계획중이다.

향후 불소수지는 건물 내외장재는 물론 고층건물의 경량화로 판넬이나 샤페스에 사용이 늘고 있는 불소수지도료 등을 비롯한 고급품을 중심으로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수입기업의 추가 가격인상도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96 화학연감 >